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 “KTX 해고 여승무원 문제해결 노력” 대책위 관계자 면담…해고 승무원 위로하고 정부 의지 밝혀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(금) 서울 용산 철도회관을 방문해 ‘KTX 해고 여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’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과 어려움을 청취하고, 해고 승무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.

 - 이날 면담은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, 해고 승무원 당사자, 각계 종교인사, 철도노조 등 대책위 관계자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.

- 이 자리에서 KTX 여승무원 해고자들은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.

 - 김 장관은 “지난 10여 년 동안 겪었던 고통의 시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, 같은 여성으로서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며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”고 밝혔다.
 - 또한, “조만간 노사협약이 잘되면 KTX 해고승무원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,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2017. 12. 29.

국토교통부 대변인